

# 朝鮮時代 王世子 冕服

## Myon-bok of the prince royal in Choson Korea

충청전문대학 의상학과  
교수 김 명 숙

| 目 次               |                           |
|-------------------|---------------------------|
| I. 머릿말            | III. 御眞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세자 면복 |
| II. 朝鮮時代 王世子 冕服制度 | IV. 맺음말                   |

### I. 머릿말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朝鮮時代 王世子の 冕服에 관한 것으로, 주로 御眞에 나타난 왕세자면복의 실재를 조선시대 면복제도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필자는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sup>1)</sup>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sup>2)</sup>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sup>3)</sup> 「儀軌 服玩圖說의 服飾史料의 價値」<sup>4)</sup> 등에서 朝鮮時代 王의 冕服이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고정되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색이나 形態 등이 部分的으로 變遷하였으며, 反面에 王妃 및 嬪의 禮服인 長衫과 繡甫老 등은 그 색이나 형태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일정한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歷代 國葬 및 禮葬 都監 儀軌의 服玩圖說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이어 王世子の 冕服은 王의 것과 어떻게 제작 규정이 달랐고 변천여부는 어떠한지 하는 문제를 규명

하고자 하는 것이 본 研究의 目的이다. 먼저 면복제도를 살펴보고 그 실제 및 변천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면복에 관한 연구자료로는 「國朝五禮儀序例」, 「國朝續五禮儀序例」,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尙方定例」, 「國朝喪禮補編圖說」, 그리고 「歷代國葬 및 禮葬 都監 儀軌」이며 孝明世子 御眞에 보이는 왕세자 면복과 朝鮮朝 末期 英親王夫婦의 遺物 服飾도 주요자료로 하였다.

### II. 朝鮮時代 王世子 冕服制度

조선시대 왕세자 면복제도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는 英祖代를 中心으로하여 朝鮮前期 및 後期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시대 구분과는 별도로 정한 것인데, 적어도 冕服制度에 관한 한 英祖代를 고비로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그와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1) 金明淑,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1983)  
 2) ,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 「服飾」, 7, 韓國服飾學會, 115-125(1983)  
 3) ,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 「韓國衣類學會誌」, 8,3, 韓國衣類學會, 57-65(1984)  
 4) , 儀軌 服玩圖說의 服飾史料의 價値, 「論文集」, 1, 忠清實業專門大學, 205-225(1985)

즉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서례」(1474) 吉禮, 祭服圖說 가운데 殿下冕服과 王世子冕服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수정·보완하여 재정한 「국조속오례의서례」(1744) 嘉禮, 玉圭圖說과 「국조속오례의보서례」(1751) 吉禮, 王世孫冕服圖說이다. 그리고 1752년에 간행된 「상방정례」와 1758년의 「국조상례보편도설」이 있다. 이들 조선후기의 자료들은 모두 英祖年間에 간행된 것이고, 그것도 英祖 20年(1744) 이후의 것들이다. 후술할 바이지만 조선후기 자료를 보면 앞서의 내용이나 규정과는 다른 사항들이 들어가 있거나, 조선전기의 규정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받아들여 그 규정에 충실하려고 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변천상은 역대의 국장 및 예장도감의례 服玩圖說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즉 冕服의 品目별로 차이가 있으나 영조국장(1776)을 고비로 하여 전·후의 服玩秩내용에서 冕服의 재료와 형태, 색, 설명등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의례 자료는 品目別 채색도가 포함되고, 재료가 기록되어 있어 그 변천상을 아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면복을 입은 조선시대 王世子の 어진(1826)과 조선조 말의 궁중 유물이 있어 왕세자 면복의 실재를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면 御眞을 통하여 조선시대 왕세자 冕服의 制度 및 실재를 각 品目別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御眞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왕세자 면복

현존하는 어진가운데 왕세자 면복을 착용한 것은 孝明世子の 어진(1826)[도1] 1점 뿐으로 두루말이 상태에서 불에 뒳은지 우측의 절반이상이 요철형태로 소실되었다. 왕세자 면복의 실물자료가 없으므로, 어진을 통한 연구는 실제의 복식 형태를 추정하는데 중요하며, 앞으로 고증을 거쳐 어진의 소실된 부분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 1) 圭[도2]

어진에 보이는 圭는 그 일부만이 약간 나타나 있는데, 청녹색계통으로 보인다. 「국조오례의서례」 王世子 冕服圖說의 圭는 玉의 것과 같은 靑玉으로 9寸길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국조속오례의서례」 옥규도설에서는 玉은 白玉圭로 9寸길이며, 王世子는 靑玉圭를 쓰고 길이도 7寸, 너비는 5寸, 剡首 1寸5分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조상례보편도설」의 규정과도 동일하다. 즉 조선시대 전·후기 왕세자 면복제도의 규는 계속 청옥 규였고, 다만 후기에 와서 길이만이 짧아졌던 것인데, 御眞을 통해 볼 때 靑色계통임은 확인이 되며 조선후기 규정에 따라 길이를 7寸, 너비 5寸으로 해야 할 것이다.

#### 2) 冕[도3]

##### ① 前圓後方

어진의 冕부분을 보면 後半部만 남아 있어 ‘後方’은 알 수 있으나 前半部의 모양이 ‘前圓’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조오례의서례」의 冕圖를 보면 앞이 약간 둥글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歷代國葬都監儀軌를 보면 宣祖國葬 이후 英祖國葬 이전의 의례 복완도설에 나타난 冕은 ‘前方後方’이었고 英祖國葬부터는 ‘前圓’으로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5)</sup> 본 어진은 英祖國葬(1776), 正祖國葬(1800) 이후에 그려진 어진이므로 ‘前圓’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② 玄表朱裏(玄覆纁裏)

어진의 冕版(平天版)을 보면 위는 검은데, 아래는 보이지 않으나 붉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면판의 두께 부분(側面)은, 어진을 통해 볼 때 밀면과 같이 붉은 색으로 칠한 것을 알 수 있다. 正祖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의 冕圖에 보면 冕版의 側面을 金色으로 나타내고 있어 규정에는 없는 이 부분을 붉은색 혹은 金色으로 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前倏後仰

「국조오례의서례」 규정에 보면 冕版의 앞높이가

5) 劉頌玉,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1991),의 원색사진을 <IV-I-g>~<IV-I-f> 참고로 하였다.

6) ‘前圓後方’ 규정은 古代 中國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심오하며, 淵源이 오래다. 그러나 中國 明에서 보내온 冕은 「세종실록」 오례의에 보면 ‘前方後方’으로 되어 있고, 明代 出土品인 冕도 ‘前方’인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중기에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英祖代 후반기에 비로소 지켜진 것 같다. 王宇清, 「后漢冕版規制 “前圓後方”의 文化歷史之淵源」, 중국고대복식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1, p4-8). 金東旭, ‘주변국가의 복식’, 「한국의복식」, 문화재보호협회

8寸5分, 뒤높이가9寸5分으로 앞으로 약간 숙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金飾과 金簪

「국조오례의서례」 규정에 보면 冕에 金장식이 됨을 기록하고 있고, 朝鮮 太宗三年에 中國에서 보내온 冕服諸具에 金簪一枝, 金葵花 大小6個 등의 物件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冕의 어느 부분에 장식되는 것인지는 本 어진 및 국장도감의 禮服玩圖說의 彩色圖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冕의 體部分에는 양 측면에 세로줄을 1줄씩, 옆으로 돌아가면서 횡선을 1줄 대고 있는데, 이를 金飾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兩側 上部에는 金으로 큰 꽃장식을 각 1개씩, 下部에는 작은 꽃장식을 돌아가며 4개 장식하는데, 朝鮮實錄에 기록된 바로 볼 때 이를 金葵花라고 부른 것 같다. 그리고 큰 꽃장식에는 金簪을 꽂고, 작은 꽃장식에는 紫組를 꿰어 비녀에 걸어서 턱으로 내리워 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玉과 旒의 色

「국조오례의서례」 규정에 보면 王世子 冕은 8旒이고 3采의 8玉을 朱, 白, 蒼의 순으로 꿰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진에 보면 맨 먼저 꿰었을 朱色玉은 冕版 바로 밑에 있어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7玉이 白, 蒼, 朱, 白, 蒼, 朱, 蒼의 순으로 되어있어 마지막 蒼色이 「국조오례의서례」 규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규정대로 한다면 맨 끝의 玉은 白色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방정례」二, 別例上, 大殿冕服條에 보면 平天冠 次에 '冕旒 五色珠 各26個, 貫次 五色絲 三錢이 든다고 하고 「국조상례보편도설」에도 같게 기록된 바 王의 면류는 五色이므로 王世子는 旒의 色이 三色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어진에는 單色으로 나타나 있어 부분적으로 규정과 다르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⑥ 玄紕과 絰纁珠(玉璫)

「국조오례의서례」에 보면 冕 옆에 玄色 紕를 내리우고 玉璫으로 귀를 가리운다고 하였는데, 어진에는 青色 紕를 내리우고 있다. 그런데 太宗 3年 中國에서 보내온 면복제구에 靑白膽珠 4개가 포함되어 있어 王의 冕 양쪽에 각각 靑白珠 2개씩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방정례」二, 別例上, 大殿면복의 平天冠에는 白玉 絰纁珠 4개가 소용

된다고 하여 한 쪽에 白玉珠 2개씩을 달기도 하였으며, 이를 紫的絲 五分으로 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방정례」 가운데 世子宮의 絰纁珠의 색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의문점이었는데 효장세자에 상도감의 禮복완도설에 보면 靑色 絰纁珠를 마련하고 있고, 어진에 보면 靑色을 단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왕의 冕에는 白色 絰纁珠를, 왕세자에게는 靑色 絰纁珠를 달아 신분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⑦ 樑의 色

「국조오례의서례」에서는 冕의 樑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景宗國葬(1724)때 처음으로 冕에 平常時 쓰던 白玉樑을 平常시의 것 그대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孝章世子 禮葬(1728) 때는 平時 王世子가 쓰던 靑玉樑을 사용하였음을 儀軌 禮服玩圖說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王과 王世子는 冕의 樑色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상방정례」(1752) 總目的 大殿冕服과 世子宮 冕服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방정례」 간행에 앞서 이미 「상방정례」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며, 규정과 실제복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⑧ 馬尾網巾 [도4]

孝明世子 어진을 보면 冕 밑으로 網巾이 보이며 이러한 망巾은 翼善冠을 쓴 英祖어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馬尾網巾으로 생각되는데, 「상방정례」一, 恒例에 馬尾網巾의 재료로 每部飾次冒緞, 長廣各肆寸, 纓子 紫的絲 三錢, 馬尾及結造 慣綿布壹尺이 든다고 하였다. 또 「상방정례」三, 別例下, 世子宮 冠禮 때 마련한 平天冠 밑의 馬尾網巾에는 白玉環 圈子 2쌍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되는데, 「국조상례보편도설」 襲條 網巾 설명에 '鵝靑無紋紗를 사용하고 端에는 紫的甲紗를 써서 주름을 잡아 당기며, 쌍관자(圈子)를 泥銀으로 그린다'고 기록되어 있어 어진에서 보이는 圈子는 「상방정례」 규정의 白玉環으로 생각된다.

#### 3) 衣 [도5] [도6]

「국조오례의서례」 王世子冕服圖說에서 衣制는 '九章과 같으나 다만 火, 華蟲, 宗彝 3章을 옷에 그린다'고 하였다. 衣는 玄色 緞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表裏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홑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을 보면 소매부리 뒤부분에

화2, 화충2, 종이3을 그리고 어깨에는 화1을 그리되 앞에서도 半이 보이도록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의례가운데 소현세자나 효장세자 예장 복완용으로 마련하는 면복의 衣圖를 보면 三章아닌 五章을 그려 넣고 있어, 「서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상방정례」의 면복次를 보면 ‘아청속초 2匹’이라 하였는데 「국조상례보편도설」과 英, 正祖 국장도감의례복완도설의 衣도 「아청속초」로 마련하고 있다. 章文을 자세히 보면 역대 의례도의 火文은 「국조오례의서례」의 둥근형태의 火文과는 다르고, 효명세자어진의 火文이나 국립박물관 소장 九章服遺物の 火文과 유사하다. 章文色을 보면 火는 붉은색, 華蟲은 적·청·녹색으로 일관성이 있으나 宗彝는 白, 혹은 黃, 綠色등으로 다양하게 칠해져 있으며 「국조상례보편도설」의 宗彝안에 그려져 있는 동물형태가 소매의 좌·우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어진에 나타난 효명세자의 衣色은 鴉青色으로 보이며, 章文은 어깨에 화1, 소매 뒤에 화2, 화충3, 종이3이 그려져 있는데, 火는 赤色, 화충의 머리와 꼬리부분, 긴 꼬리털은 綠色, 눈 주위와 등, 짧은 꼬리털은 赤色, 얼굴과 목, 가슴, 배부분은 靑色, 부리와 다리의 무늬등은 黃色, 부리와 다리, 등(背)의 무늬등은 黃色으로 칠하였고, 종이의 둘레선과 밑받침대의 장식선, 그리고 宗彝 안의 동물(원숭이)는 黃色으로, 종이의 바탕색은 綠色으로 칠하였다. 종이안의 원숭이는 자신의 긴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형상인데, 「국조상례보편도설」의 종이 안에 그려진 동물이나 九章服유물의 종이 안에 그려진 동물과 또 달라, 옷에 따라 章文형태나 색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章文의 종류나 위치등 기본적인 것은 같다고 보여진다. 특기할 것은 규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어진을 통해 볼 때 어깨의 火文을 소매의 그것에 비해 길이와 너비를 1.5-1.6배 크게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점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어진의 소매부리 안 쪽을 보면 흰색 안감이 보여 접옷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服玩用冕服의 재료에서 볼때 ‘靑納9尺, 白納4尺8寸’이라 하여 本色의 綠을 두르는 부분에만 흰색

안감을 댔을 것으로 추정한 바이다.”

#### 4) 裳 [도7]

「국조오례의서례」 왕세자면복도설에서 裳은 九章과 같다고 한 바, ‘縹色의 7폭으로 앞 3폭, 뒤 4폭이며 매 폭의 양 옆은 각 1寸씩 꿰매며, 이를 削幅이라 한다. 腰間에는 무수히 주름을 잡는다. 양 옆과 아래에는 純이있고 조·미·보·불 4장을 수 놓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裳의 「서례」 기록과 그림은 주름을 무수히 잡는다는 점에서 서로 맞지 않고, 착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던 탓인지 역대국장도감의례복을 보면 선조·인조 국장때에는 국조오례의서례 도설과 거의 같은 형태의 裳이 그려져 있으나, 孝宗 국장(1659)때 부터는 裳의 형태에 변화가 생기며, 그 후 몇가지 형태로 변천 되어 왔다.<sup>7)</sup> 그러다가 英, 正祖代에 와서 제도가 재정비되어 「국조상례보편도설」에 보면 앞3폭, 뒤4폭을 붙이고 허리에 주름을 많이 넣어 옆으로 허리끈을 매게 하였다. 그리고 앞 3폭의 양 폭에 조·분미·보·불 4장을 장식하였는데, 바탕은 紅色, 허리끈과 허리는 靑色이고, 章文色은 패슬과 같다. 이 裳의 章文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英祖 19년에 衣를 짧게 하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이 전교는 英祖 국장때 받아들여져 의례복완도설의 衣圖는 짧게 그려지고 있다. 어진에서는 裳이 衣속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으나, 「英祖 국장도감의례」와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裳制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大帶 [도8]

「국조오례의서례」 王世子 祭服用 冕服 圖說에 보면 大帶는 九章服과 같다고 하였고, 王의 大帶 기록을 보면 緋色과 白色의 縵을 합해 꿰맸다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緣 및 組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림이 채색되어 있지 않아, 어느 부분을 緋色으로, 어느 부분을 白色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또한 같은 「국조오례의서례」 服玩圖說에 보면 王 冕服의 大帶는 겉과 안을 白羅로 하고 紅綠緣을 댄다고 하여, 緣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어떤 色의 緣을 대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大帶의 기본적인 형태만 알 수 있고 色에

7) 金明淑,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 (1983), 44p

8) 주7과 같음. p.49-55.

대한 것은 잘 알 수 없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의 王世孫 冕服圖說을 보면 大帶는 王世子帶와 같다고만 하여, 王과 王世子 王世孫 大帶制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 각 부분의 色은 명확치 않다.

「尙方定例」三, 別例 下에 보면 世子宮 冊禮時 면복을 마련하는데 大帶 次로는 草綠雲紋匹緞 半幅 13尺, 大紅雲紋匹緞 半幅 6尺5寸, 內供으로 白無紋匹緞 半幅 6尺5寸과 靑組 一部가 소요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別例 上의 大殿冕服條에 보면 大帶 次로 上記한 바 王世子の 大帶 내용과 덧붙여 靑組 次로 藍眞絲 2兩6錢, 五色多繪 次로 五色眞絲 各 1錢이 든다고 하였다. 이로서 英祖代에는 王 및 王世子 面복의 大帶의 겉을 草綠色과 大紅色 雲紋緞으로, 안감은 無紋 白色으로 만들며, 靑組를 달고 거기에 五色多繪를 늘어뜨렸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상방정례의 기록만으로는 어떻게 大帶를 만드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된 冕服의 大帶는 겉을 白熟絹로, 안을 紅熟絹로 만든다고 하여 그보다 6년전에 정한 「尙方定例」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色이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 그리고 허리(腰)는 紅熟絹로 선을 두르고, 紳(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은 綠熟絹로 선을 대며 양 옆에 靑組를 달아 맨다고 하여 이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부분의 色에 대해 언급하여 大帶제작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는 中國 明 永樂 三年에 定한 親王冕服의 大帶制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대의 의례 복완도설을 살펴보면 宣祖 국장부터 孝章世子 예장까지 복완으로 마련한 面복의 大帶 재료는 白羅 長3尺 半骨과 多紅段 5寸인데 그림에는 허리부분만이 붉게 채색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白色임을 볼 수 있다. 面복 大帶의 彩色圖는 服玩圖說 이외에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로 볼 때 多紅段으로는 허리(腰)의 겉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白色羅로 만든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大帶를 착용하고 靑組로 허리를 매면 허리(腰) 부분이 뒤로 젖혀져 白色 안이 겉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英祖 국장 때에는 앞서의 大帶 규정이 바뀌어 '겉은 白熟絹, 안은 紅熟絹로 하고, 허리는 紅熟絹, 紳은 綠熟絹로 선을 댈다. 양 끝에 靑組를 단다'고 하였

는데 이는 「국조상례보편도설」의 기록과 같다.

효명세자 어진에 보이는 大帶는 전체가 靑色이며, 앞에서 리본 형식으로 매어 양 쪽으로 늘어뜨렸고 패슬의 고리(鉤)가 여기에 걸려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靑色이 바로 大帶의 靑組부분으로 생각된다. 이것으로 허리를 매면, 紳부분은 양 옆으로 가게되고 腰부분도 허리 뒤로 가게되어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효명세자 어진의 大帶制는 허리(腰)와 紳부분을 볼 수 없어 「국조상례보편도설」 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조 말기(1920년대) 英親王妃의 유물 가운데 翟衣에 착용하는 大帶가 있어 살펴 보면, [도8] 이 大帶는 뒤의 後垂와 함께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겉은 白色紋段으로 안은 紅絹로 되었고, 겉에 玉色 선(緣)을 두르며 紳도 帶와 같다. 양 옆의 6.4cm너비의 靑組는 남색무문견으로 만들어져 앞으로 매도록 되어 있고, 그 끝은 같은 남색으로 술을 만들어(6cm길이) 달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英祖代에 바뀐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表裏色과 組의 色은 같으나 緣의 色이 다르다. 이처럼 大帶의 色은 규정과 실제가 알맞은 경우가 많으므로 효명세자 어진의 大帶의 色이 素表朱裏일 것으로 보나, 腰와 紳의 綠色이 무엇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 6) 中單 [도9]

孝明世子 어진에 보면 面복 속에 중단을 착용하였을 터이지만 중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국조오례의서례」 王世子 冕服圖說에 보면 九章服과 같아 '중단은 白縐으로 만들고 靑色으로 領, 標, 襖, 裾에 선을 두르고 領에 11개의 黻文을 그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는 달리 그림에는 黻文을 9개 그려놓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왕과 왕세자의 중단은 黻文의 수로 차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림이 맞는 것 같다. 昭顯世子禮葬때(1645) 마련한 服玩用 中單의 재료로 白絹 二十尺, 衿藍絹 三尺三寸이라 하여 조선전기의 中單의 바탕은 白色, 緣은 靑 또는 藍色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도설」가운데 大欽用으로 마련하는 絳紗袍의 中單條를 보면 泥金으로 黻을 그리는데 小喪일 때는 깃의 뒤에 1개, 좌우 각 4개, 합해서 모두 9개를 그린다고 하여 「서례」의 그림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文祖 綏陵遷奉都監都廳儀軌(184

6) 服玩秩 中單에 보면 '白絹青領繪 九'라 하여 孝明世子가 翼宗으로 추존된(1834) 이후에도 服玩用 冕服을 王世子신분의 것으로 마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孝明世子 어진의 면복 속에 입은 中單은 白色바탕에 소매 끝과 도련 등, 옷 가장자리를 청색계통의 색(청, 남, 아청색) 등으로 두르고 깃에는 泥金으로 黻文을 9개 그렸을 것으로 본다. 한편 「상방정례」三, 別例下, 世子宮冊禮時 마련하는 中單 次에 '白熟絹 1匹15尺'만 나와 있고 青色 緣감이 없어 의문인데, 冕服 次에 '鴉青熟絹 2匹'이 써여 있으니 면복을 만들고 남은 것으로 中單 緣을 댔던 것인지 아니면 중단에 선을 두르지 않았던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또 한 의문점은 現存 九章服遺物에 포함되어 있는 中單의 길이가 면복보다 길고, 바탕색과 緣色이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인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제작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 7) 佩王(琬) [도10]

孝明世子 어진의 佩玉은 왼쪽 옆으로 약간 보이는데, 赤, 靑, 玄, 纁, 綠色의 순서로 짠 五色 小綬위에 2개의 玉이 나타나 있다. 「국조오례의서례」면복도설에 의하면 王世子 패옥은 王의 것과 같은데, 衡, 瑇, 瑪, 璜, 衡牙 등 玉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밑받침인 小綬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림을 보면 맨 위에 鉤가 있고 패옥이 4단으로 구성되어 上部 제1단에 1개, 제2단에 3개, 제3단에 1개, 제4단에 3개 합하여 8개의 玉이 매달려 있고 밑받침용 綬의 上部는 斜線 방향으로 交織되어 있으며 下部에 網綬를 늘어 뜨리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佩玉은 역대 의례 복완도설을 살펴볼 때 宣祖國葬 이후 孝章世子 禮葬(1728)까지 계속 사용되었는데 의례에는 채색이 되어있어 上部는 綠色, 下部의 망수는 紅色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佩玉制度는 영조대에 와서 바뀌게 되는데, 즉 「국조상례보편도설」, 小欵條에 '琬는 綬를 사용하며 바탕의 길은 赤, 靑, 玄, 纁, 綠色의 五色을 교직한 비단으로, 안은 紅熟絹로 하고 五色의 남은 실은 網綬로 엮어 늘어 뜨린다. 琬玉과 銀鉤를 없애고 唐粉으로 琬를, 泥金으로 鉤를 그린다'고 하였고 英·正祖 국장도감의 복완도설에도 거의 같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琬圖를 보면 上部 1단에 1개, 제2단에 3개, 제3단에 3개, 제4단에 5개, 합하여 12개의 玉을 매달고 있

다. 어진에 보이는 玉 2개는 이 가운데 제4단의 가운데와 양 옆의 玉으로, 바탕의 五色絲는 망수로 생각된다. 망수의 윗 부분을 보면 다섯 단 엮은 것이 보이는데, 그 윗 부분은 어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망수와 같은 색으로 짠 交織緞이 있어 패옥을 받쳐주고 교직단의 안은 紅熟絹로 만든 것일 것이다. 그런데 조선조 말기 英親王妃의 佩玉유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 '紅, 白, 藍, 黑, 綠의 색동 견직물에 매듭으로 網繡를 맺고 술을 늘인 小綬위에 부착되어 있다.[도11] 裏面은 紅色雲紋紗로 되었고 위에 도금된 고리가 달려있다'고 하였고 실물 또한 「국조상례보편도설」의 琬와 거의 일치되고 있어 조선후기 英祖대에 개정되었던 琬制는 대한제국 이후 1920년대까지 이어져 왔고 「대한예전」의 琬制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8) 綬 [도12] [도13]

「국조오례의서례」왕세자 면복의 綬는 왕의 것과 같이 紅花錦으로 하고 雙金環을 다는 것이었다. 선조국장 이후 효장세자에장까지 복완으로 마련된 綬는 「국조오례의서례」의 같되 채색도에는 上部에 紅色, 망수부분에 綠色으로 칠해져 패옥받침과 대조를 이루며 재료는 '紅絹 2尺'이라 하였다. 의례의 綬圖를 보면 6개의 줄이 上部에서 시작되어 3줄로 합해 엮어 느리웠고, 상하 4단으로 나누어 각 단에 花形장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탕은 佩玉의 밑받침과 같이 사선교직단을 대고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전기의 綬制는 英祖대에 가서 바뀌게 되는데, 「국조상례보편도설」을 보면 '綬의 表裏와 網綬는 制와 같게 하고 金環을 없애고 泥金으로 그린다'고 하고 [도13]와 같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英·正祖 국장도감의 복완도설의 綬圖는 [도13]과 같으나, 내용에 있어서 평상시와 같은 金環을 달도록 하였다. 「상방정례」二, 別例上, 大殿冕服의 後綬의 기록을 보면 冕服, 絳紗袍를 改造할 때 직조한다고 하며 재료로 大紅, 藍, 鴉靑, 玉色, 深草綠의 五色眞絲가 들며 役經白絲, 鮮紋紗次白絲, 邊絲次白絲, 曲去里次白絲, 蓋覆次楮摺紙 등이 있고, 이어서 網垂의 재료로 이상의 五色眞絲가 써여 있어, 後綬 망을 짤 때 소요되는 재료를 알 수 있다.

한편, 「상방정례」三, 別例下, 世子宮冊禮時에 마련하는 冕服에 綬가 포함되어, 그 재료로 錦衣鄉織 2尺1寸, 內拱 大紅雲紋紗 2尺1寸, 銀鉤子 2個次

1品銀 1량1전5푼, 銀圓環 2個次 1品銀 1량, 鑲黃金, 鑲水銀 등이 기록되어 있어, 면복 諸具에 綬와 後綬가 별도로 마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상방정례」上의 綬와 後綬는 「국조상례보편도설」이나 英·正祖 국장도감의례의 綬와는 조금씩 다른데, 아마도 「상방정례」간행(1752) 이후 綬와 後綬를 통합하여 한가지로 정리하여 「국조상례보편도설」(1758)에 실은 것 같다. 孝明世子の 어진에서는 後綬가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국조상례보편도설」의 後綬制와 같이 5색교직단(안은홍초)에 5색망수를 늘이고, 雙銀環을<sup>9)</sup> 달았을 것이다. 조선조말기 영친왕비의 후수유물은 大帶에 함께 달려 있는데, 전기한 바 패옥의 밑받침과는 달리 '縱絲는 적, 녹, 청, 백색의 순서로, 橫絲는 백, 남, 홍, 녹색의 순으로 평직으로 짠 색동 견직물로, 하단에는 縱絲의 색과 동일한 4色으로 짠 7cm 정도의 망수를 연결하고 그 밑에 16cm의 술을 늘였다'고 하니 이는 조선 후기의 규정과 다르게 제작된 것이다.

#### 9) 方心曲領 [도14]

方心曲領은 方心和 曲領 그리고 纓의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孝明世子の 어진에는 方心曲領의 曲領과 纓의 좌측 半부분만이 보이고, 우측과 方心 부분은 소실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보면 王世子の 방심곡령은 王의 것과 같아 白羅로 만들고 양 옆에 끈(纓)이 있는데 좌측은 녹색, 우측은 홍색이고, 그림에서 볼 때 목 뒤에서 여미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서례」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조국장도감의례복완도설에는 면복에 방심곡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673년에 거행된 孝宗寧陵遷奉때와 1674-75년에 거행된 顯宗國葬때 비로서 복완용 면복을 마련할 때 처음으로 方心曲領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재료가 白生絹 1尺5寸뿐이고, 끈 색이 白色이어서 方心曲領이 「서례」규정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명칭도 단순히 '方心'이라고만 기록하였다.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은 '方心'은 1728년 孝章世子에 장때까지 지속되었으나, 英祖 국장(1776)때 부터는 의례에 「서례」의 左綠右紅 규정을 기록하면서 '領右當肩處安團樞'라 하여 단추

를 다는 위치를 오른쪽 어깨부분으로 옮기고 있다. 또한 명칭도 '方心曲領'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국조상례보편도설」과 같다. 「상방정례」二, 別例 上, 大殿冕服에는 '方心' 次로 白絹4尺과 纓子次로 大紅雲紋紗와 草綠雲紋紗를 각각 長1尺5寸, 廣2寸 마련한다고 하여, 조선전기의 「국조오례의서례」규정대로 제작되었을 것인데, 이로 볼 때 '方心'이란 명칭이 다시 '方心曲領'으로 복귀된 것은 「상방정례」간행(1752) 이후 「국조상례보편」간행(1758) 이전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효명세자 어진의 方心曲領 오른쪽 부분은 왼쪽과 같은 형태이나 紅色 끈이 내려져 있고, 어깨 부분에 단추가 달려있어 여미도록 되었고, 중앙부분에는 白色의 方心部分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0) 蔽膝(蔽膝) [도15]

孝明世子어진의 폐슬은 半이상이 소실되어 좌측 하단 부분을 볼 때 형태와 文색, 緇, 바탕색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국조오례의서례」王世子 폐슬은 九章과 같아 纁色이고, 위에서 5寸떨어져서 藻, 粉米, 黼, 黻의 四章文을 각 2개씩 수놓고, 돌레를 돌아가며 위에는 紕, 아래는 純이 있으며 上部의 양 쪽에 고리가 달려 있어 걸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폐슬 上部의 고리(鉤)는 조선시대 현종국장이후(1674-75)~효장세자 예장때에(1728) 청색 끈으로 바뀌어 뒤로 매기도 하였으나 英祖代에 와서 다시 고리를 달아 걸도록 하였는데, 「국조오례의서례」의 폐슬과는 약간 달라 紕와 純이 없고, 대신 五色交絲로 三面을 돌아가며 꿰맨 것이었다. 이와 같은 폐슬制는 「국조상례보편도설」에 잘 나와 있고 영·정조 국장도감의례복완도설에도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孝明世子어진에 약간 보이는 폐슬도 이상과 같은 형태와 색이며 오색실을 끈 형태와 방향까지도 의례 服玩圖說과 일치하고 있으며 大帶의 靑組에 걸어달고 있다. 한편 폐슬의 章文은 藻, 粉米, 黼, 黻의 四章인데 章文의 색은 어떠하였으며 施文方法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黻의 색은 어진에 검게 나타나 있으나 다른 章文의 색은 소실되어 잘 알 수 없다. 「상방정례」三, 別例 下, 世子宮 冊禮

9) 金英淑, 「朝鮮朝 末期 王室服飾」,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7), p.196.

상방정례의 규정에 의하면 王의 綬에는 金環을, 王世子는 銀環을 달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時 마련한 冕服諸具 가운데 袞의 재료로는 大紅熟納 3尺2寸과 五色多繪 1部만이 남아 있어 그 의문의 해결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의 服玩諸具의 袞의 재료에 大紅熟納과 五色多繪에 이어 畫章次로 泥金, 泥銀, 二靑, 三靑, 粉, 朱紅, 大綠이 기록되어 있고, 彩色된 袞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章文色은 물론 章文을 규정처럼 수 놓지 않고 그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의복 복원도설을 통해 알게 된 袞의 章文色은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은데<sup>10)</sup> 이는 裳의 章文色과도 같은 것이었다.

#### 11) 襪 [도16]

孝明世子 어진에 보이는 버선은 紅色인데 「국조오례의서례」에 의하면 홍색 겹 버선으로, 안감도 紅色이었다. 「서례」 그림을 보면 버선의 上下가 양분되었고 끈은 이 양분선에 끼운 것으로 보인다. 의복에 의하면 끈은 바탕과 다르게 白色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버선은 孝宗국장때까지 사용되다가 孝宗寧陵을 遷陵할 때부터 바뀌고 있는데 즉, 버선 한 쪽으로 끈 2개가 달리게 된다.

그런데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襪에 보면, 겉은 紅熟納, 안은 紅紵布로 만드는데, 뒷 면 상단에 1寸을 남기고 박으며, 그 양 옆에 紅熟納로 만든 끈을 꿰맨다.」고 하였다. 그림을 보면 수놓을 중심으로 버선이 좌우 양분된 형태로서, 끈의 색이 바탕과 같고, 끈을 버선 뒤 양 옆에 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버선은 英·正祖代부터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국조오례의서례」 규정과 색은 같으나 끈의 색과 위치가 달라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효명세자의 襪은 바로 英祖代의 새 규정에 따라 만든 버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 12) 舄 [도17]

孝明世子 어진에 보이는 舄은 襪과 같은 紅色으로 신목이 비교적 높고, 코가 약간 올라가 있으며, 신코와 신을 돌아다니며 청색실을 엮어 들렀는데 밑의 한 줄은 굵고, 신코의 위의 한 줄은 가늘게 하였다. 신코의 앞 부분에도 가늘게 곡선 장식을 청색실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신의 옆에 고리가 있고 거기에 끈을 꿰어 앞에서 리본처럼 매었다.

신바닥과 꿰맨 실은 연청색이고, 신바닥에는 무수한 연청색의 점 장식이 나타나었는데, 이는 술 장식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 된다.

「국조오례의서례」에 보면 王世子の 舄은 王과 같이 겉을 緋段으로, 안을 白緋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림에 보면 코에 장식이 있고 옆으로 끈이 있고 앞에 술이 달렸으며 바닥에는 짧은 털 장식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들이 무슨 색인지는 기록에 없다. 선조국장이후 효장세자에장까지의 국장도감의복 복원질의 赤舄條에 보면, 재료로 紅納 1尺, 白紵 1尺1寸 白綾 8寸, 白正布 4尺5寸, 厚紙 1張, 靑眞絲 8錢, 紅眞絲 1兩5錢, 綠眞絲 2兩이 기록되어 있어, 겉을 紅納로, 안을 白紵로 만들어 「서례」 규정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며, 靑, 紅, 綠色眞絲로 술이나 신바닥의 장식등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국조오례의 서례」 제도는 英, 正祖代에 가서 다소 달라지는데, 즉 「상방정례」二, 別例 下, 大殿冕服의 赤舄次는 ‘大紅廣의으로 겉을, 白羅로 안을 만들고 昌도 白羅로 한다. 纓子(끈)次로는 大紅廣의을 쓰며 回伊蘇兀과 昌訥非音은 鵝靑眞絲로 한다. 襪로는 白正布 7尺이, 꿰매 때는 白絲 2錢이 든다’고 하여 장식술과 바닥(昌)의 술 등을 아청색으로 통일시켰던 것이다. 「국조상례보편도설」에는 舄의 형태를 아는데 또 다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겉은 홍속초로, 안은 백속초로 하고 純과 纓兒(즉 蘇兀)는 아청진사로, 좌우와 뒤의 純옆에는 白納로 만든 작은 고리를 달고 紅納로 만든 끈(紵)을 고리에 꿰어서 맨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英·正祖국장도감의복의 복원도설에서와도 같고 그림도 같다. 효명세자 어진의 舄은 바로 이러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진을 통해 볼때, 純(신울둘레)과 纓兒(술)은 물론, 신코와 앞 곡선장식도 아청진사로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흰색 작은고리에 꿰 붉은 끈을 리본처럼 매었을 경우, 그 위치가 어진에서보다 더 내려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맺음말

10) 주1) p.73.에 보면 藻文은 綠 혹은 靑色, 粉米는 흰 원 바탕에 검은 점을 여러 개 찍어 원형으로 하고, •文의 도끼자루와 도끼 끝과 날 부분은 白色, 도끼 몸체는 靑色이고 •文은 검은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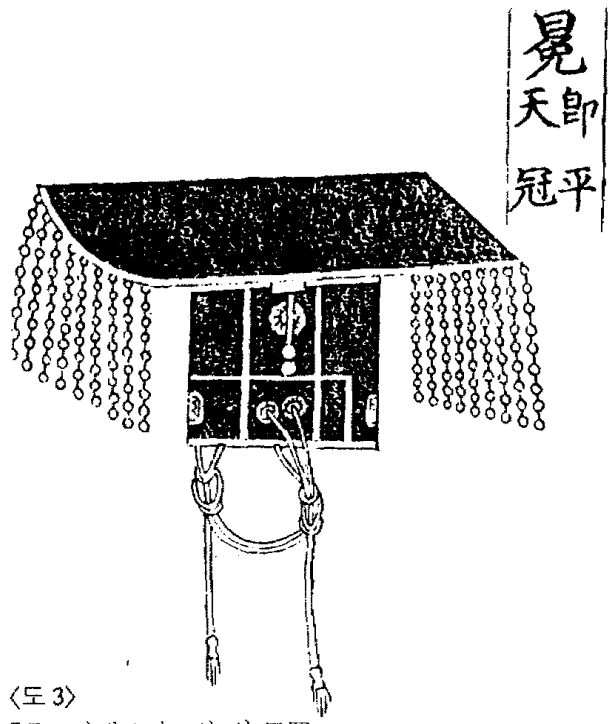
이성 孝明世子 어진에 나타난 면복諸具를 통하여 조선시대 왕세자의 면복을 살펴 보았다. 어진은 사실화로 실물을 그대로 그리는데 충실하였으므로 조선후기 왕세자 면복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왕세자 면복은 「국조오례의서례」 규정의 8류면 7장복이었으며, 왕의 면복처럼 시대에 따라 형태 및 규정 등에 변천이 있었다. 규정과 비교하여 본 결과 이 어진에 나타난 면복은 조선 후기 「국조속오례의」 및 「국조속오례의보」, 「상방정례」, 「국조상례보편」 등의 조선후기 면복규정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만 大帶, 면류의 色이나 면류玉의 색 등 몇 가지가 규정과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다.

왕세자의 면복제도로는 조선전반기 中國 明 景泰 元年에 받은 면복제를 근거로 하여 제정한 「국조오례의서례」 제복도설이 마련된 바 있으나, 그 제도가 소략하고, 그림에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아 도설만

으로는 면복의 구성에 불충분한 것이었다. 역대 가례 및 국장·예장도감의례 복원도설 등에서 면복의 衣次기록 등을 볼 때 조선 전기에도 「국조오례의서례」 규정과는 별도로 자세한 尙方儀例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한 바 英祖後期를 고비로 조선시대의 면복규정은 재정립됨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 풍미하였던 고증학과 실학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조오례의서례」 규정에 맞는 면복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 또 비싼 중국제품을 쓰지 않고 토산품이나 향직을 쓰는 등 간소화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王이나 王世子の 면복을 고증, 복원함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변천된 바가 다르고, 또 규정과 실제가 같지 않은 품목이 있으므로, 어느 시대의 면복을 고증하는가에 따라 品目別 형태나 제도 연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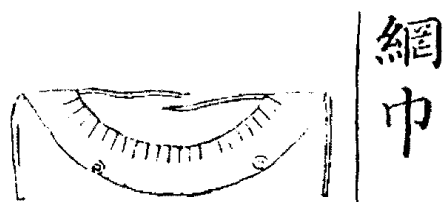
<도 1>  
翼宗 敦文顯武仁壹恣孝明大王 十八歲 御眞圖  
출처: 「服飾」, 第十七號, p.79 韓國服飾學會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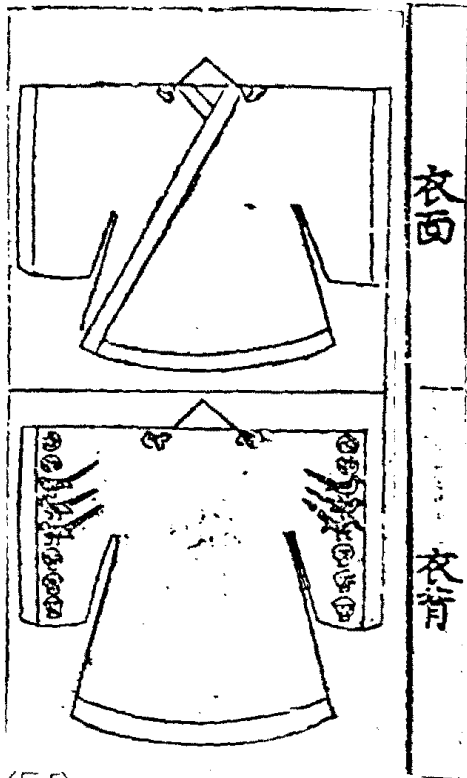
<도 3>  
「국조상례보편도설」의 冕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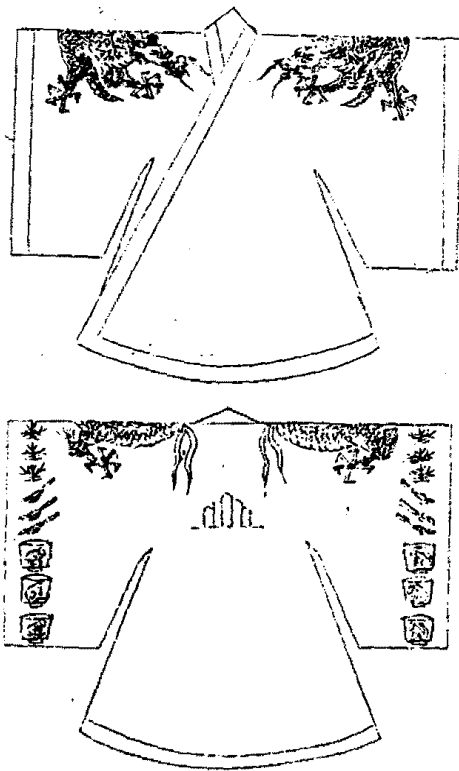
<도 2>  
「국조오례의서례」 王世子冕服 圖說의 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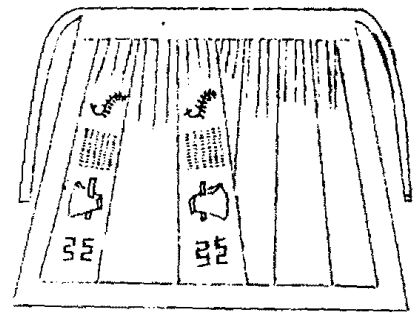
<도 4>  
「국조상례보편도설」의 網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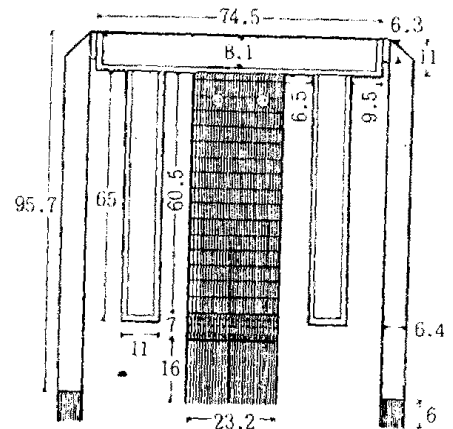
<도 5>  
「국조오례의서례」衣圖 訛世子冕服圖說의 衣圖



<도 6>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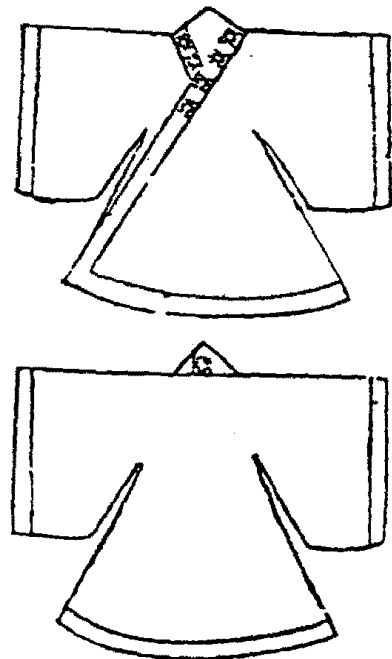


<도 7>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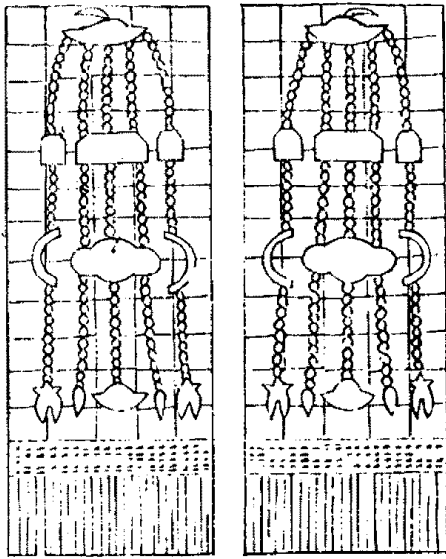
大帶·後綬

<도 8>  
「조선조말기 왕실복식」의 大帶와 後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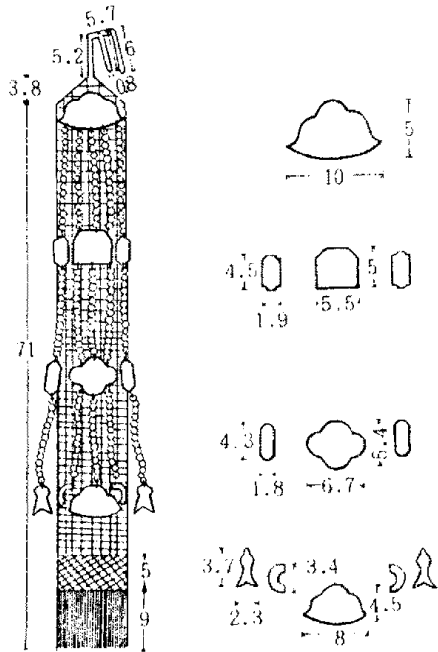
<도 9>  
「국조오례의서례」訛世子冕服圖說의 中單圖

# 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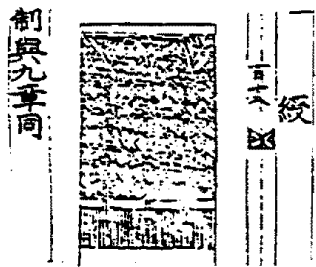
<도 10>

「국조상례보편도설」의 綵圖



<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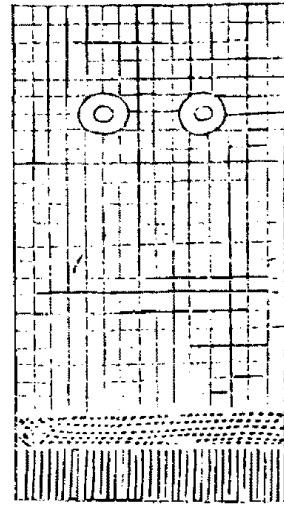
「조선조말기 왕실복식」의 佩玉圖



<도 12>

「국조오례의 서례」王世子冕服圖說의 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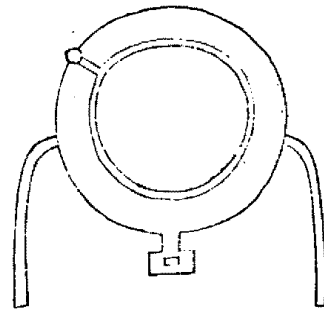
# 綵



<도 13>

「국조상례보편도설」의 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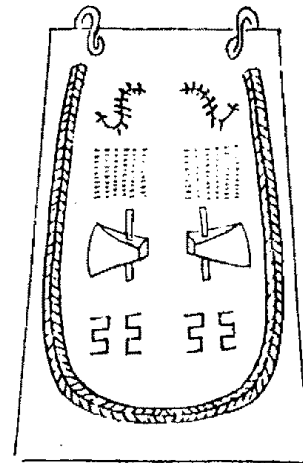
# 方心曲領



<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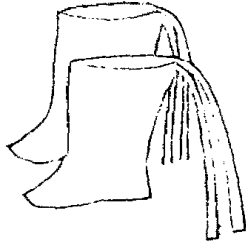
「국조상례보편도설」의 方心曲領圖

# 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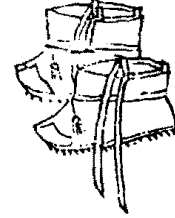
<도 15>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蔽膝(韞)圖



<도 16>  
「국조상례보편도설」의 襪圖

紅襪



<도 17>  
「국조상례보편도설」의 鳥圖

赤鳥

參 考 文 獻

(사서류)

「국조오례의 서례」, 1474.  
 「국조 속오례의 서례」, 1744.  
 「국조 속오례의보 서례」, 1755.  
 「국조 상례보편도설」, 1758.  
 「상방정례」, 1752.  
 「대한예전」  
 김동욱, “주변국가의 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김영숙, 「조선조 말기 왕실복식」, 서울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7.  
 왕우청, “후한면판 규제 전원후방적 문화역사지연원, 「중국고대복식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중국형주 : 형주박물관, 1991.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례 복식」, 서울 : 수학사, 1991.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제3판제2쇄 발행, 1983.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1983.

(의례류)

선조국장도감 의례, 1608.  
 소현세자 예장도감의례, 1645.  
 인조국장도감 도청의례, 1649.

효종 국장도감 의례, 1659.  
 효종 영릉 천릉도감 의례, 1673.  
 현종 국장도감도청 의례, 1674-1675.  
 숙종 국장도감 의례, 1700.  
 경종 국장도감 의례, 1774.  
 효장세자 예장도감 의례, 1778.  
 영조 국장도감 의례, 1776.  
 정조 국장도감 의례, 1800.  
 순조 국장도감 의례, 1834.  
 문조(효명세자) 수릉 천봉도감 도청의례, 1846.  
 현종 국장도감 의례, 1849.  
 문조(익종) 수릉천봉도감 의례, 1855.  
 순조 인릉 천봉도감 의례, 1856.  
 철종 국장도감 의례, 1864.

(논문류)

김명숙, “조선시대 면복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3.  
 , “조선후기 면복의 변천”, 「복식」, 7, 한국복식학회, 1983.  
 , “조선시대 비빈 장삼 및 수보로의 일고찰”, 한국의류 학회지, 8, 3, 한국의류학회, 1983.  
 , “의례 복완도설의 복식 사료적 가치”, 「논문집」, 충청실업전문대학, 1985.